

오늘 이야기

오늘 하루의 일상을 자녀에게 물어봐주세요. 자녀와 부모님을 서로 나눠주세요.

성경 이야기

가족과 함께 성경을 읽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일입니다. 부모님께서 먼저 한 마디를 읽어주시고 아이가 따라 읽도록 해주세요. (적어도 2번 정도 읽어주세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아래 그림을 통해 아이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해주세요.



1. 바울은 에베소 교회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바울은 디모데가 좋은 일꾼이 되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훌륭한 군인답게, 멋진 운동선수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교회를 끝까지 잘 섬겨주길 바랬어요.



2. 군인은 어떻게 생활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고 놀지 않아요. 군대에 가면 똑같이 머리를 깎고 똑같이 군복을 입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이라고 외치며 명령을 따라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이 되어야 해요.



3. 운동선수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운동선수는 날마다 매일 똑같이 연습하며, 경기에 임하기 전에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규칙대로 운동을 해야 나중에 멋진 승리의 관을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좋은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4. 농부는 어떻게 생활할까요? 농부는 큰 수확을 기대하며 날마다 물을 주고 포기하지 않고 잘 기다려요. 이처럼 좋은 일꾼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잘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도 주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충성하며,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되기로 해요.

우리 이야기

오늘 말씀에 대한 대화를 나눠주세요. 아래 질문을 이어 사용해주세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충성할 때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일꾼이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나요?
어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요

8월 생활미션

하나님의 일꾼
물총놀이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물총놀이를 하며 미움, 욕심, 거짓된 마음을 씻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물총놀이를 하면 미션 완료!

** 미션 수행 후, 부서 담당교역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인증해주세요!

주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지게 해주세요.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월요일

하나님 아버지, 잃었던 나라를 되찾게 해 주시고, 자유를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광복절 대체 휴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음 세대도 우리의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화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받은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먼저 고마움을 표현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수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실수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에게 먼저 사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서운한 마음을 오래 간직하지 않고 용서하며 다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목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필요한 만남을 허락해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게 해주세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믿음과 삶을 함께 성장시킬 수 있는 친구와 동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금요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혼자 고민하지 않게 해주세요.
서로에게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토요일

하나님 아버지, 내일 드릴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해주세요.
내일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오늘 일정을 잘 정리하게 하시고, 가족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